

특별기고



신기창
속초기상대 대장

황사(Asian dust)란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

한다. 육안으로는 시정이 나빠지며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고 햇빛이 차단되어 기온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이후부터 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미세 모래먼지 대기 중에 퍼져

과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우토(雨土), 토우(土雨)라고 기록을 하며 흙비라고도 불렀다. 중국에서는 모래먼지로 인해 시정 1천m 미만, 풍속 12~19m/s이 4시간 이상 지속될 때 사진폭(沙塵暴)

봄철 황사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황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빠르게는 11월부터 발생하여 이듬해 5월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나 주로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바람에 흙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물망으로 덮어놓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여름과 가을철 비가 집중되어 식물의 뿌리가 흙을 고정시키지 못 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강한 바람, 게다가 건조한 토양으로 인해 황사발원지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편서풍과 제트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 이동경로 3가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이동경로는 보통 3가지가 있다.

고비와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경우 발해만을 거쳐 서해중북부를 지나 24시간만에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산둥반도를 거쳐 서해중남부를 지나 24시간만에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만주에서 발원하는 황사는 발해만을 거쳐 서해북부를 지나 12시간만에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황사피해를 줄이려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일반인도 과격한 실외 운동과 실외 경기를 삼가는 게 좋다.

또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고, 창문을 닫고 물걸레로 방을 자주 청소하는 한편 가습기로 건조를 막아야 한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준비하는 게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가급적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위층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더니, 갑은 보수공사를 치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직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

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도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

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681-1666~7 / 팩스 681-1668/ 이메일 goseongnews@hanmail.net

평택춘놈의 종목분석

하이닉스(000660)

강한 조정 이후 반등을 보이며 한숨 돌리는 코스피 시장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국제 정세와 대북관련 정세 등 시장의 추가 상승을 방해하는 불안 요소다. 거기에 지난 2월까지 강한 상승 이후 최근 반등에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시장의 반등이 지속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량주 중기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

이 있다. 다만 과거주가 수준과 현재의 주가 수준, 그리고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아직 덜 오른 우량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지난 2007년 고점 전후에서 조정을 보여 조정 폭이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시장의 상승 추이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중기 저점이 확인된다면 들어가 볼만한 우량주들을 추려 놓는 것도 최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투자



정오영
평택춘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는 단기 성향의 투자자이건 중기 성향의 투자자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깊다면 중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찾아보

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하이닉스(000660)를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업체이다. 삼성 전자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동사는 지난 긴 시간 동안의 치킨게임 을 이겨내고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설비투자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그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했던 꾸준한 설비투자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모바일 전자기기 판매의 호조로 지속적인 반도체 시장 회복이 예상되고 과거에 힘겨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회복단계에 있는 기업 환경과 충분한 현금보유량은 기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지난 10년간 홍보의 흐름을 보였던 하이닉스에 관심을 뒤 볼만한 시기라 판단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춘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